

【ESD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 회의를 끝내고】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10월의 「ESD 추진을 위한 공민관 - CLC 국제회의」를 시초로 시작된 오카야마의 「ESD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 회의」는 세계 97개의 지역과 국가에서 약 3,000명의 분이 참가해 주셔서 지난 17일 1개월여에 걸친 회의 기간의 막을 내렸습니다

일련의 회의에서 오카야마 지역에 뿌리내린 환경 보전과 국제 이해 등의 ESD 활동을 이후의 세계 ESD 보급 모델 (「오카야마 모델」)로 널리 세계에 알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ESD가 세계 공통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오카야마시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ESD의 추진에 노력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는 바입니다

특히 10월의 「ESD 추진을 위한 공민관 - CLC 국제회의」에서의 「오카야마 공약」과 11월 4일부터 7일까지의 「글로벌 RCE 회의」에서의 「오카야마 선언」으로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오카야마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수 있었던 것이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네스코 스쿨 세계 대회」 고교생 포럼에서는 언어와 국가의 벽을 넘어 환경 파괴와 경제 격차 등 지구 규모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동 선언을 채택하고 11월 10일에 나고야 시에서 개최된 「오프닝 총회」에서는 고교생 대표와 함께 황태자와 황태자비께 보고하고 따뜻한 말씀도 받았습니다.

또한, 포럼 종료 후 교류회에서는 고교생들의 뜨거운 열기에 압도되어 인사도 대충 마무리 할 정도였습니다. 젊은이들의 파워는 놀라웠습니다.

그 외에도 자원 봉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ESD 관계자와 직접 대화하고 환영함으로 해외에서 참가하신 분들이 너무 감격해 하시고 또한 오카야마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련의 회의가 끝나서 조금 흥가분한 기분이 드는 것이 솔직한 표현입니다만, 앞으로 세계 곳곳의 많은 분이 오카야마에 들를 수 있도록 환영과 정보 발신에 한층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참가자의 발표 중에서 잊을 수 없었던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라오스 교육 관계자

「아이들은 의무 교육을 받고자 학교에 오지만 졸업할 무렵에는 그 수가 대폭 줄어든다. 특히 여자 아이들은. 」

◎ 이집트의 남성

「우리는 테러에 시달리고있다 . ESD 도 테러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한다. 」

◎ 중국의 여성

「우리의 ESD 는 하나 하나의 작은 농촌에서 시작된다. 」

◎ 케냐의 남성

「여러 나라와 도시의 회의에 참석했지만, 오카야마의 환대가 가장 좋았다. 」

◎ 나이지리아의 여성

「(함께 『우라자』 를 추면서) 나이지리아의 정치인은 결코 우리와 함께 춤춰주지 않는다. 」